

컴퓨터 영웅들의 컴퓨터 입신출세담

컴퓨터로 부와 명성 거머쥔 인물들의 일화 및 전기 독자들 관심끌어

컴퓨터를 두고 현대와 미래를 잇는 연결고리라고 한다. 지난 반세기 동안 진화를 거듭해온 컴퓨터는 이제 어떤 분야에서든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서점의 컴퓨터도서 코너는 수백 수천가지의 책들이 즐비하다. 그런데 최근 컴퓨터의 기술적인 메뉴얼만을 지도하는 이런 책들 사이로 컴퓨터 귀재들의 소개를 통해 독자를 컴퓨터의 역사로 안내하는 책들이 선보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컴퓨터를 처음 고안해냈던 과학자들과 이후 수많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명성과 부를 한 손에 거머쥔 영웅들을 소재로 한 책들이 바로 그것이다.

먼저 이 책들은 저자 나름의 기준에 의해 영웅들을 선정해 엮은 책과 특정인물과 기업에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 구분된다. 앞의 예에 속하는 책으로는 「해커」(스티븐 레비/과학세대, 사민서각) 1, 2권과 「컴퓨터 영웅들」(로버트 슬레이터/이규창, 동아일보사) 「소프트웨어의 창시자들」(수잔 램머스/노원주, 신어림) 「컴퓨터를 만든 영웅들」(조엘 셔킨/과학세대, 풀빛) 「PC로 세계를 움직인 사람들」(팀스캐널/손원일, 하이테크정보)이 있으며, 개인의 업적을 소개한 책으로는 「빌 게이츠」(제임스 월라스 외/이은영, 다음세대)와 역시 같은 인물을 소재로 한 「마이크로소프트와 빌 게이츠」(다니엘 이흐비아/강자모, 세종서적), 그리고 「스티브 잡스」(리 버처/양천주, 비앤시) 등이 있다. 이 책들은 원자폭탄과 함께 20세기 최고의 발명품으로 불리는 컴퓨터와 관계된 많은 천재들과의 만남을 추천한다.

뚜렷한 족적 남긴 프로그래머 등 다뤄

컴퓨터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으면서도 독학으로 거듭되는 시행착오를 거쳐 뛰어난 실력을 갖추게 된 컴퓨터광을 일컫는 '해커'(Hacker)를 제목으로 한 「해커」는 「롤링 스톤」지의 편집자인 스티븐 레비의 저서로, 50년대와 60년대에 걸쳐 MIT 인공지능연구소에서 활동했던 '진정한 해커들'과 70년대에 '캘리포니아의 하드웨어 해커들'로 불렸던 전문가들, 그리고 퍼스컴의 시대로 지칭되는 80년대의 '게임의 해커'들을 시대별로 엮어 그들을 소개함으로써 컴퓨터의 변천사를 읽게 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그동안 해커는 컴퓨터에 있어 '범법자'나 '파괴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돼 왔으나 진정한 의미에서 해커는 컴퓨

컴퓨터를 개발한 과학자들과

프로그래머들의 공적을

기록한 '컴퓨터 관련인물서'들이

속속 선보이고 있어 뜨거운

컴퓨터의 열기를 짐작케 한다.

특히 이 책들은 전문가들은 물론

초보자들의 컴퓨터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돕는다는 점에서

입문서로서도 한몫을 단단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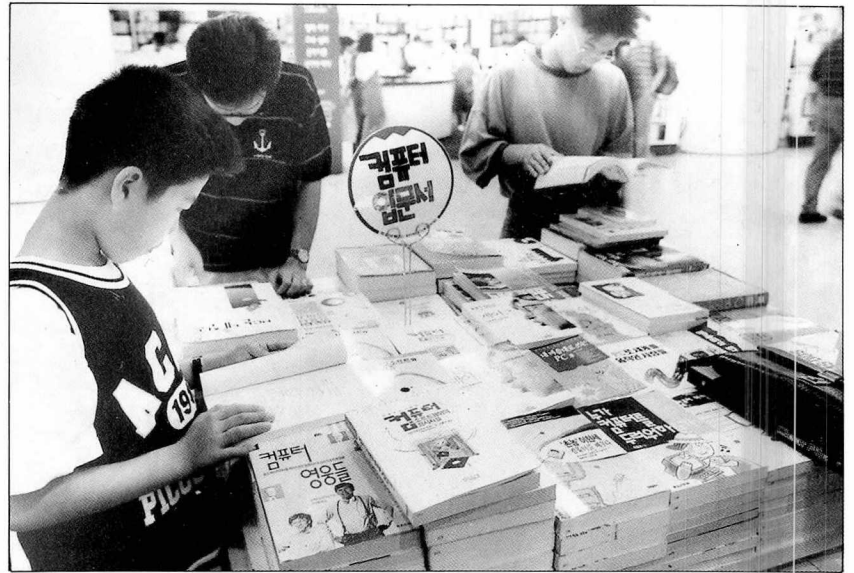
할 것으로 기대된다.

터를 발전시킨 원동력이었음을 강조하면서, "애플사나 시에라 온라인사 등의 시주도 처음에는 차고에서 햄버거로 끼니를 때우며 PC에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 하나를 입력시키고자 하는 소박한 꿈을 지녔던 해커들이었다"고 적고 있다.

두명의 기자가 쓴 「컴퓨터 영웅들」과 「컴퓨터를 만든 영웅들」 역시 제목에서 보이듯 컴퓨터 분야의 신화적 인물들을 모은 책들. 먼저 「타임」지의 기자인 슬레이터가 컴퓨터의 개념을 세운 찰스 베버지부터 소프트웨어의 황제 빌 게이츠까지 모두 34명을 선정해 실은 「컴퓨터의 영웅들」은, 그들이 왜 컴퓨터계에 투신하게 되었고, 그들의 주요 연구과제는 무엇이었나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독자는 이 책을 통해 컴퓨터의 발명자들은 물론 컴퓨터 설계자와 컴퓨터 언어 개발자 그리고 소프트웨어 전문가들, 컴퓨터로 성공한 기업가들의 끝없는 도전과 성공의 드라마를 접할 수 있으며, 어느 분야에서든 마찬가지로 불행한 결말을 맺은 빛바랜 영웅들과도 조우하게 된다.

신화적 인물들의 인터뷰 모음도

저자는 34명의 선정이유에 대해, "트랜지스터를 발명한 쇼클리는 소개하면서 진공관을 발명한 사람을 제외한 것은, 컴퓨터를 밀폐된 연구실에서 끄집어내 대중의 손에 넘겨주려는 노력을 보인, 즉 컴퓨터의 쓸모를 확산시킨 공로가 잦았다"고 말한다. 한편 전직 로이터 통신기자였던 조엘 셔킨의 책 「컴퓨터를 만든 영웅들」도 인공지능의 근간을 마련한 비운의 앨런 튜링을 위시해 비디오 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 재벌이 된 10대 컴퓨터광들을



기업스토리와 일대기 등의 형식으로 구성된 컴퓨터광들에 관한 책들.

통해 컴퓨터의 발전사를 다룬다.

전문 인터뷰어인 수잔 램머스에 의해 나온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창시자들」은 이 분야의 전설적인 영웅들이 현재 대부분 생존해 있다는 특성을 잘 말해주는 책. 따라서 이 책에 실린 살아 있는 신화의 주인공들의 목소리는 생생하게 전달된다. 매킨토시의 아버지 제프 래스킨, 최초로 마이크로 컴퓨터용 O/S를 개발한 게리 킬달, 찰스 시모니를 비롯해 로터스와 dBASE 프로그램을 개발한 주로 70년대 이후의 프로그래머들 12명과 인터뷰 내용으로 꾸며져 있는데, 소프트웨어 디자이너들의 현장체험과 기법 등을 알려줄 뿐 아니라 프로그래밍에 얽힌 일화도 실려 있어 흥미롭다.

예를들어 헝가리 태생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멀티 플랜과 엑셀을 개발한 찰스 시모니에게 수잔 램머스가 "전문가로서 처음 만든 프로그램은 무엇이며, 프로그래밍 방법에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질문하면, 시모니는 "첫 개발 프로그램은 포트란과 같은 고급 언어용 컴파일러로 이것을 정부기관에 판 덕분에 헝가리에서 떠날 수 있었고, 덴마크에서 다루었던 컴퓨터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고 답한다. 부록으로 실린 프로그래머들의 스케치와 소스코드는 프로그래머 지망생들에게 도움을 줄 만한 것으로, 그 가운데는 앤디 헤르츠펠드의 "그 자체가 독립된 매킨토시용 프로그램인 'Icon Boune'"도 들어 있다.

인터뷰 모음형식의 또 한편의 책 「PC로 세계를 움직인 사람들」은 일본의 월간 「The Computer」지에 실렸던 원고를 재편집한 단행본으로, 굴지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회사들인 인텔 텐디 로터스 컴팩 등의 社史와 대표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담고 있다.

특정인물 중심으로 엮은 기업사도

"인물로 보는 컴퓨터의 변천 발전사"류에 속하는 이상의 책들과 달리 걸출한 한 인물에 초점을 맞춘 책들도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사장인 빌 게이츠에 관한 두권의 책과 애플社 출신으로 독립한 후 넥스트社를 운영하고 있는 스티브 잡스를 주인공으로 한 책이 바로 그것이다.

먼저 13세에 컴퓨터에 빠져 30세에 억만장자가 됨으로써 대중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빌 게이츠를 다룬 「마이크로소프트와 빌 게이츠」는 70년대 컴퓨터업계의 아성이었던 IBM을 '굴복' 시킨 빌 게이츠의 사업가로서의 능력과 재능을 정확한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검증하고 있는 책. 역시 빌 게이츠의 유년기부터 하버드대학 시절, 그리고 기업가로서 성공하기까지의 과정을 추적하고 있는 책 「빌 게이츠」도 있으며, 최초의 PC인 애플컴퓨터를 발명한 천재공학도 워즈니악과 함께 애플사를 창업했고, 이후 차세대 컴퓨터인 넥스트를 개발한 넥스트사의 "운 좋은 백만장자" 스티브 잡스를 다룬 「스티브 잡스」도 컴퓨터 천재의 일대기로 읽힌다.

전세계적으로 9000만대, 우리나라에만도 200만대의 PC가 쓰이고 있을 정도로 이제 컴퓨터를 모르면 '컴맹'이라 불려도 마땅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단지 기술만을 배워 활용하기 보다는 30원짜리 애니악을 고성능 노트북 PC로 발전시킨 영웅들의 이야기를 통해 컴퓨터의 역사를 알아 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 최태원 기자